

미국 테크 기업들 오히려 지금 봐야한다?

ETF 마케팅 김수정 매니저
sara.kim@miraasset.com

Summary

2022-09-19

미국 증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성장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봐야하는 이유는 3가지다. 1)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보여줬고 2) 차세대 혁신성장 동력에 진심이며 3) 미국 증시는 장기적으로 저위험, 고수익을 보여준 시장이기 때문이다. 2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수익성은 높은 편이다. 이러한 미국 증시 성장의 주역은 테크 기업들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TIGER 미국 테크 Top 10 INDXX ETF와 TIGER 미국 나스닥 100 ETF를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것도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이다.

미국 테크 기업을 지금 봐야 한다?

미국 증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중이다. JP 모건은 남은 2022년 미국 테크, 성장주들의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애플 전문 투자자로 알려진 루프 벤처스의 진 먼스터는 몇 년이래 애플의 주가 40% 상승에 대한 컨빅션을 발표했다. 반면 환율, 미국 기업들의 이익 전망 하향 조정 연준의 금리인상에 대한 확실한 의지 등을 이유로 미국 투자에 대해서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럼에도 미국 테크 기업들, 그리고 성장주를 지금 봐야 하는 이유는 1)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보여줬고 2) 차세대 혁신성장 동력에 진심이며 3) 미국 증시는 장기적으로 저위험, 고수익을 보여준 시장이기 때문이다. 흔들릴 때 오히려 관심을 가져 볼 만 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최근 팩트부터 체크해보자. TIGER 미국 나스닥100 ETF와 TIGER 미국 테크 Top 10 INDXX ETF에 포함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2분기 실적발표를 보면 기업별로 나뉘기는 하지만 시장의 큰 우려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실적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이던스에서도 인플레이션, 경기둔화, 광고 매출 하락 등 다양한 이유로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그래도 미국 성장주, 미국 빅테크는 다르다’라는 면모를 보여준 실적발표였다.

〈미국 테크 탑 10 기업들의 22년 2분기 실적 & 가이던스〉

기업명	22년 2Q 매출	전년비 성장률	컨센서스 대비	보유 비중	가이던스
Apple	830억 달러	1.9%	상회	21.18%	비공개
Microsoft	518억 달러	12%	부합	19.63%	긍정적
Alphabet	697억 달러	13%	부합	18.32%	비공개
Amazon.com	1,212억 달러	7%	상회	14.39%	긍정적
Tesla	169억 달러	41%	상회	9.03%	긍정적
Meta Platforms	288억 달러	-0.9%	하회	5.37%	보수적
NVIDIA	67억 달러	3%	하회	4.86%	보수적
Adobe	44억 달러	14%	상회	2.37%	보수적
Comcast	300억 달러	5%	부합	2.01%	보수적
Cisco Systems	131억 달러	-0.2%	상회	2.20%	긍정적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자산운용

■ 집합투자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0~100%)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환율변동에 따라 외화자산의 투자 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 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 테크 기업들 오히려 지금 봐야한다?

ETF 마케팅 김수정 매니저
sara.kim@miraеasset.com

주도주가 바뀌기 어려운 이유

올해 연준의 입장과 경제지표들을 이유로 미국 증시의 등락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시기에 많이 회자되는 질문은 한 발짝 더 나아가 다음 상승장에서의 주도주는 누가 될까이다. 더 길게 본다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도주가 바뀔 수 있을까? 2015년부터 지금까지 굳건하게 주도주자리를 지켜온 섹터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다. 2015년부터 평균적으로 400% 올랐으나 시장이 불안한 요즘 엇갈리는 반응이 나올 만한 시기다. 월가는 이제 테크주들의 하락은 끝났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반대로 오랜 기간 주도주 자리를 유지해온 만큼 이번을 계기로 다른 섹터가 미국 증시를 이끌 것이라는 입장도 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테크기업들이 위상은 크게 흔들리기 어렵다. 미국 테크 기업들은 미래에 대한 준비를 누구보다 진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주가가 미래가치를 선반영해서 움직인다는 특징을 생각해보면 빅테크 기업들은 장기적인 미래는 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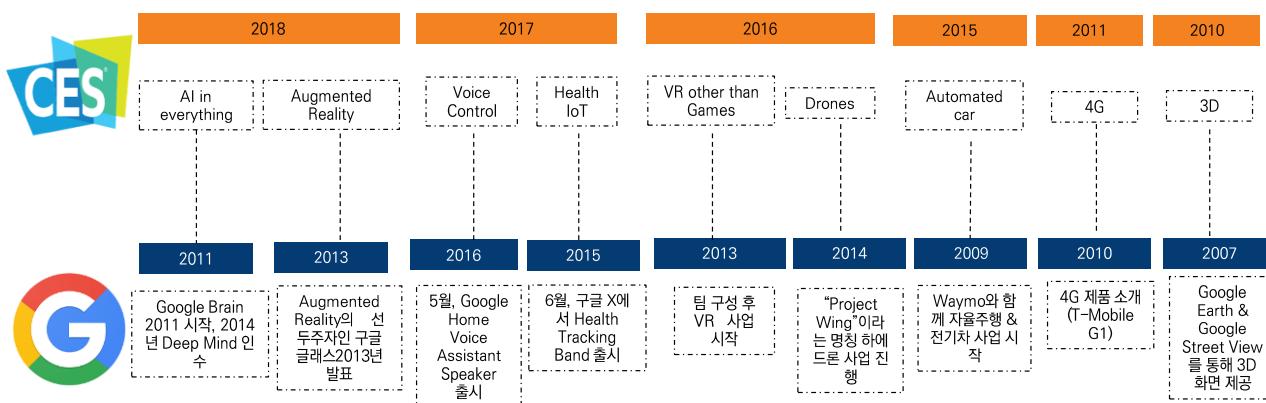
〈미국 빅테크 2015년 이후 상승률〉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자산운용 | 2015.01.01~2022.09.06

각 기업별로 준비하는 미래는 상이하다. 하지만 어떤 기업이 어떤 기술력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신제품 출시는 언제인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지만 어떠한 스킴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더 넓은 관점에서 이해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테크 기업들을 대할 수 있다. 우선 구글을 통해 미국 빅테크가 미래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구글이 미래를 선도하는 속도는 CES 보다 빠르다〉



자료: Google, CES, 미래에셋자산운용

■ 집합투자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0~100%)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헌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헌율변동에 따라 외화자산의 투자 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 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 테크 기업들 오히려 지금 봐야한다?

ETF 마케팅 김수정 매니저
sara.kim@miraеasset.com

사실 대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그러하듯 구글은 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 회사다. 표면적으로 실적발표에는 광고랑 클라우드만 나오는데, 알파벳은 다양한 기술력 발전을 도모하는 중이다. 웨이모는 자율주행 회사, 글래스는 AR 관련되어 있는 자회사이며 크로니클은 사이버보안 회사고 네스트는 IoT 계열이다. 최근에야 회자되기 시작한 다양한 산업들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자회사를 둘 만큼 철저히 준비해오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심지어 구글의 미래를 그리는 회사 중 Calico(칼리코)는 바이오 회사로 인간 노화를 막고 수명을 500살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그만큼 다양하게 먼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테크 업계 관계자들은 보통 CES에서 발표된 기술들을 보고 미래를 이야기하곤 하는데 구글은 CES보다 먼저 동일한 기술을 발표하기로 유명한 기업이다. 비단 구글뿐만 아니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실적에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서 수많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애플은 애플 카를 2025년에 출시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XR 기기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은 미국 1위 로봇 청소기 업체인 아이로봇을 올해 8월에 인수하면서 로봇 산업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고 MGM 스튜디오도 인수하면서 미디어 사업으로의 진출 궤도를 그리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 메타버스에 관심이 많다. 오클러스와 비슷한 홀로렌즈를 비롯해 AR 서비스인 Shop in 3D Experience를 통해 메타버스 기술을 발전시키는 중이다. 올해 내로 첫 VR/AR 세트를 출시하는게 목표다. 이렇듯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아낌없는 투자와 관심을 가지고 실행 중이다. 앞으로 다양한 산업들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AI, 클라우드, IoT, 메타버스, 신재생에너지의 시대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장기적인 성장은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애플카와 애플 XR 기기〉



자료: Vanarama, Globaltechoutlook
*애플이 출원한 특허 기반으로 제작한 가상의 이미지

〈아마존이 M&A 한 기업들〉

기업명	규모	M&A 일자
홀푸드	137억 달러	2017년 8월
MGM 스튜디오	84.5억 달러	2022년 3월
원메디컬	39억 달러	2022년 7월
아이로봇	17억 달러	2022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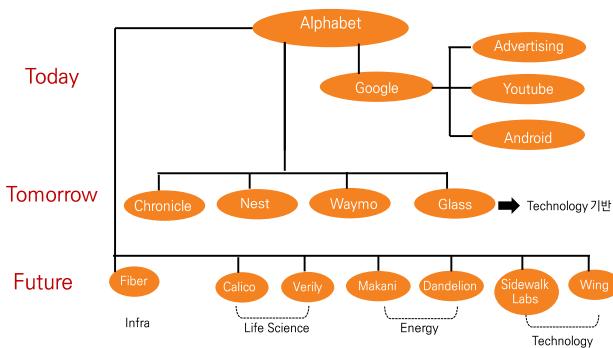
자료: 매거진 한경 | 22년 8월 18일 기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버스 속으로〉



자료: Microsoft

〈사람들이 모르는 구글의 구조〉



자료: Google, 미래에셋자산운용

■ 집합투자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0~100%)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흐름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험률변동에 따라 외화자산의 투자 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 테크 기업들 오히려 지금 봐야한다?

ETF 마케팅 김수정 매니저
sara.kim@miraasset.com

미국은 역사적으로 다른 국가들 대비 변동성 ↓ 수익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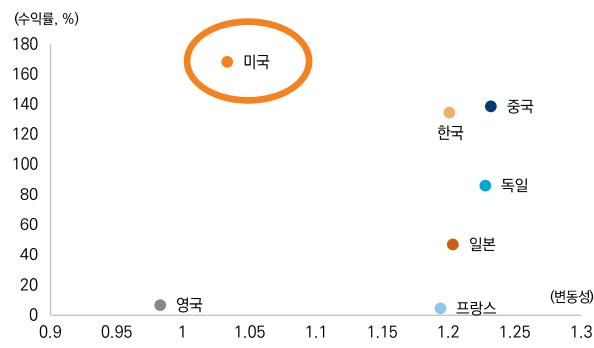
그럼에도 미국 기업들에 대한 불안이 가시지 않는다면 여태까지 어땠는지를 보자. 물론 과거의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2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낮은데 수익성은 높은 편이다. 변동성 대비 수익성을 생각하면 왜 미국 증시가 금융시장에서 가장 화두인지 알 수 있다.

〈미국은 다른 국가들 대비 변동성이 낮고 수익성이 높았다〉

pt (1999.12.31=100)



자료: Bloomberg | 1999.12.31~2022.09.06



자료: Bloomberg | 1999.12.31~2022.09.06

이러한 미국 증시 성장의 주역은 테크 기업들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지금 TIGER 미국 테크 탑 10 INDX ETF와 TIGER 미국 나스닥 100 ETF를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것도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이다.

■ 집합투자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0~100%)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흔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흔율변동에 따라 외화자산의 투자 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 테크 기업들 오히려 지금 봐야한다?

ETF 마케팅 김수정 매니저
sara.kim@miraearset.com

상품개요

구분	TIGER 미국테크 TOP10 INDXX ETF
종목코드	A381170
최초상장일	2021년 04월 19일
기초지수	INDXX US Tech Top 10 지수
총보수	연 0.49% (집합투자업자: 0.42%, 지정참가: 0.02%, 신탁 : 0.025%, 기타: 0.025%)
과세내용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 과세(보유기간 과세) : Min(매매차익, 과표 증분) X 15.4%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과세 : Min(현금분배금, 과표증분) X 15.4%

구분	TIGER 미국 나스닥 100 ETF
종목코드	A133690
최초상장일	2010년 10월 18일
기초지수	Nasdaq 100 지수
총보수	연 0.07% (집합투자업자: 0.05%, 지정참가: 0.001%, 신탁 : 0.01%, 기타: 0.009%)
과세내용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 과세(보유기간 과세) : Min(매매차익, 과표 증분) X 15.4%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과세 : Min(현금분배금, 과표증분) X 15.4%

* 상기 명시된 총 보수와 함께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0~100%)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흔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흐름변동에 따라 외화자산의 투자 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 테크 기업들 오히려 지금 봐야한다?

ETF 마케팅 김수정 매니저
sara.kim@miraearset.com

리스크 관리 및 투자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증권, 섹터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전체 투자 가능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추적오차 (Tracking Error) 위험	ETF는 추적대상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을 실현함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투자신탁보수, 위탁매매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지출 및 추적 대상지수 구성종목 변경에 따른 매매 시 시장충격, 상/하한가, 거래정지 등에 따른 미체결 등 현실적 제한 등으로 인하여 추적대상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이 제대로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ETF의 수익률과 원화환산 추적대상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는,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 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투자대상국 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 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환위험 노출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투자신탁 위험 관리의 환위험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본손실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거래가격과의 괴리 발생위험	ETF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수급의 변화로 인해 ETF의 순자산가치에 비해 거래가격이 다르게 형성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ETF 거래가격의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시장수익률 추종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시장(혹은 비교지수)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장(혹은 비교지수) 수익률 하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즉, 시장수익률 하락시 수익률하락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조정 등 별도의 노력을 수행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시장 투자에 따른 괴리를 확대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의 기초지수 구성종목은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므로 한국거래소와는 거래 시간 및 거래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와 시장 가격 사이의 괴리를 확대시킬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투자위험은 전체 목록 중 일부를 나열한 것으로, 상품 고유위험 등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0~100%)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투자대상, 헌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환율변동에 따라 외화자산의 투자 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 테크 기업들 오히려 지금 봐야한다?

ETF 마케팅 김수정 매니저
sara.kim@miraearset.com

Compliance Notice

- 투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투자 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변동,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은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TIGER ETF에 투자하기 전, 투자자 또는 잠재적인 투자는 그러한 투자가 자신의 특정한 투자 요구나 목적 및 재무상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투자자문가와 상담하거나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펀드 가입을 결정하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제작하였으며,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의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 기간 종료 후 연금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내용이나 향후 시장 상황 변경으로 전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2-0415 호 (2022.09.15~2023.09.14)

■ 집합투자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0~100%)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환율변동에 따라 외화자산의 투자 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